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 골로새서 3장 14-17절

Tag: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3:14-17)

오늘 말씀에는 명령어가 많이 나온다. 약 9번 정도.

주로 마음에 내리는 명령이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심리가 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네 마음 가는데로 해-네 몸이 말하는대로’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성경은 네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됨.),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위가 아닌 오직 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령한다.

14절에는 사랑을 더하라. 13절 까지의 말씀에 사랑을 보태라. 더 많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웃기처럼 보태라는 뜻.

또는 마치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더하듯이, 사랑을 보태라. 그래야

음식에 맛이 나듯이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겠느냐는 뜻.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고 명령하였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분주하고, 둘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가정과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 자기 혼자 있을때의 평안이 아닌, 교회 공동체나 가정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이다.

15절에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나온다. 나의 정체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사람은 불평하는 자가 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 한 사람이 된다. 불평하는 자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키가 작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키크는 약을 먹든지 노력해서 키가 커지면 된다.

그런데 청년 시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데 더 큰 키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키는 커지지 않는다. 하이힐을 신어 보고, 키높이 깔창을 깔아 보고 해 보지만, 키는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키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키가 크면 좋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자신의 키가 자신의 정체성인 셈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한단계 더 나아가서 불만을 갖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정체성에 대한 감사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실 불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성장에 대한 욕구일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성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핵심정신이다.

감사란 인생의 상처 위에 사랑을 바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상처는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우리는 연약하며, 무지하며, 미련하며, 악하다. 부족함이 많으며, 가난하며, 건강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 보다는 실망하고 낙심되어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도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병든 강아지만 보아도 안타까워하며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강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사람을 보고 측은지심이 없을소냐.

연약한 자여 겸손하라.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강한척하지 말라. 사람들이 연약한 그대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겸손하라. 겸손한 것은 비굴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요, 진실한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라. 오직 악한 자들만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악한 자들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

죄인이여 회개하라. 남탓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얼굴에 첩판을 깔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저주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겸손히 회개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다.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겸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 한 없이 겸손할 수 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한 없이 회개할 수 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사랑을 더할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은 치유될 수 있으며,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들어낸 승리의 깃발이다.

감사는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혜롭게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신령한 노래가 풍성하면 온 교우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기뻐하고 교인들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요즘은 교회들도 문제가 많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교회는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한때는 위험한 때도 있었고, 힘겨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셨다.

(우리는 한 때 한나라교회와 연합하려고도 했었다. 교회 건물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서울 예배당으로 철수를 했지만, 지금 한나라교회는 이단에게 교회를 팔았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한나라교회목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송내에서의 위기 때문에 나는 일터교회에 도전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었다. 당시 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이용해서 선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요즘도 이 계획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요즘 작은 교회들이 일터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 교회는 한발 앞서 나가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교회는 2005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시대, 새 물결, 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며 새 시대에 걸맞는 건강하고 참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잘 익은 간장처럼 건강한 교인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17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말 하라고 하신 말을 할 뿐이다.

내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다.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내가 큰 돈을 벌어서 감사할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 한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며, 그들이 지불한 금액에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 역시 감사 제목이겠지만, 우선은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지옥에 보내신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7:22-23)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실수가 많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 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말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제자의 거룩한 옷 성경: 골로새서 3장 12-14절

Tag: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 3:12-14)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답은 병든 답을 죽인다.

사람은 멸절된 자도 죽인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사람은 자신과 체제가 다르면 죽인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사람이 그런 존재이다. 사람은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죽인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며, 무지하며, 사악하며, 시기와 질투가 많으며, 쉽게 빠치며, 핑계를 대면서 배반하며, 욕심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다.

희생한다고 해서 죄 없는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하나님은 황공하게도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
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옷을 입히는 방법이다.

속을 개조하지 않으시고 옷을 입혀 주셨다.

순서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 받는 자처럼

그리고 명령하셨다. 옷 입으라.

무슨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13절.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라.

용납;죄인인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를 개조하려고 하지 않는것. 너도 여전히 개조되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셨음.

용납하면서 책망하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자신을 책망한다.

그러면 용서하라;죄를 용서하라. 회개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면 기다려 주어라.

오래 참음의 옷. 중보의 기도가 필요함. 그런데 용납은 먼저하라. 그
래야 회개가 쉬어지고 용서가 쉬워진다.

14 저주를 푸는 열쇠는 사랑이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기. 그동
안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라.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
문에.